

도민 투표 참여 열기 뜨겁다

지난달 29~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일제히 치러졌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이틀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도내 유권자 151만908명 중 80만975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34.74%보다 무려 18.27% 높은 수치다. 전북은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북의 투표 참여 열기가 뜨겁다는 방증이다. 이에 이틀동안 진행된 사전투표 현장을 살펴봤다.

(사진=뉴시스 제공)



투표를 향한 발걸음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전주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신분증 확인’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한 어르신이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다.

투표소 찾은 시민들



지난달 29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도내 기초단체장들 “사전투표 참여합니다”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기초단체장들이 지난달 29일, 각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나서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정현을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부부,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부부, 최영일 순창군수)

“엄마 따라”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별관 창조미래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하는 유권자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입구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